

전남도, 쌀 생산량 늘려 농가소득 증대

10a당 생산량 8개 도 중 최하위
품질 좋은 '새청무' 등 보급증 확대
생산 10% 높여 1000억 소득 증가

전남도가 도내 농가의 주 소득원인 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쌀 생산량 증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전국 사·도 중 가장 많지만, 10a(아르·1000㎡)당 생산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타 지역에 비해 수량이 약 85% 수준으로, 쌀 생산량을 10% 이상 끌어 올려 약 1000억원의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량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전국 쌀생산량은 350만700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은 68만8000t을 생산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0a당 생산량은 전국 평균이 483

kg이지만 전남은 이보다도 낮은 441kg으로 도 단위 8개 지역 중 최하위다. 전남의 쌀 생산량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6%~14.5%까지 감소하고 있다.

전남의 10a당 쌀 생산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남도는 친환경 벼 재배·이모작 재배·간척지 재배 면적 확대·일조량 부족·잦은 태풍 등을 들었다. 친환경 벼 재배의 경우 일반벼 대비 생산량이 5~10% 적고, 이모작 재배도 일모작과 비교해 생산량이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생산량 향상을 위해 우선 벼 품질과 수량이 보장된 보급증 확대를 위해 포대당 1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주 보급종인 '신동진'과 '새일미' 외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쓰러짐에 강한 '새청무'를 내년부터 본격 공급해 오는 2022년까지 보급 비율을 올해 2배 수준인 70%까지 높기로 했다.

또 토양에 부족한 규산 성분을 높이기 위해 규

산질 비료 사용을 확대한다. 규산질비료는 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병해충 침입을 억제해 벼 쓰러짐 방지에 효과가 있다. 태풍 피해가 잦은 전남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규산질비료 구입비 전액을 보조해 신청농가에 공급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살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벼 적기수확도 지원한다. 벼 재배농가 별로 수확시기가 비숙해 농기계 부족으로 수확기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등 사업으로 콤바인을 확대 보급해 수확작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내년 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농가교육을 강화해 적기 모내기와 적정 포기수 확보, 중간 물떼기, 적기 비료 사용 등 쌀 생산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규모·수시교육을 통해 농가 실질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독일 라이프치히 부르크하르트 융 시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그린뉴딜 정책 등에 대한 양 도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독 라이프치히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이용섭·부르크하르트 융 시장 공유

광주시와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부르크하르트 융 독일 라이프치히 시장과 1시간가량 영상회의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전략, 그린뉴딜 정책 등 분야별 협안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은 이보다 앞서 기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만큼 노하우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서 '한·독 인권회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계획을 전하고 라이프치히가 주(主) 파트너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했다. 독일 통일의 실마리가 된 평화 혁명을 이끈 라이프치히의 역사성을 지켜세우고 내년 5·18 기념식에 부르크하르트 융 시장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르크하르트 융 시장은 "두 도시가 AI·그린뉴딜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길 바란다"며 "독일과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인권 도시로서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고 화답했다. 두 도시는 2012년 우호협정을 맺고 방문 교류를 이어왔다. 내년에는 시립미술관 교류, 광주 미디어 아티스트의 라이프치히 빛의 축제 참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3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회원들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전남도,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1767억 투입

공익활동형 등 5만354명 모집

전남도가 오는 18일까지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내년 사업대상은 올해보다 3600여명 증가한 5만354명으로, 사업유형은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4개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218억원이 늘어난 176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 봉사 등을 실시할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대상으

로 하며,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등 수익사업을 할 '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돌봄 및 취약계층지원 시설에서 업무를 보조할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비롯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일자리사업 등 2개 이상 참여중인 자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어르신은 사·군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건강상태 개별상담 등 선별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하며, 선별되지 못하더라도 대기자로 관리돼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여자 신청시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 분산모집, 온라인 신청 홍보 등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활동일자를 나눠 투입인원을 분산하고, 실내·대면사업은 설의·비대면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 급증... "장염·식중독 주의하세요"

코로나19로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고 있는 데도, 노로바이러스는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매주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급성 설사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했다. 11월 둘째 주 24건 중 1건(4.2%)이었지만 셋째 주에는 34건 중 5건(14.7%), 이달 첫째 주 현재는 40건 중 8건(20.0%)을 기록했다.

지나해와 유사하게 12월 초부터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어 바이러스성 장염과 집단

식중독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영하의 저온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환자 구토물에 의한 비말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기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 병원체와 달리 다양한 경로로 감염돼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음식을 8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생굴, 조개, 회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정·힐링! 웰니스 관광지 발굴 SNS 이벤트

전남관광재단, 4~13일 50명 선정

전남관광재단은 3일 "전남 웰니스 신규 관광지 발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정 관광지로 손꼽히는 전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5개의 웰니스 관광지(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 장흥 우드랜드, 신안 태평염전, 국립장성숲체원, 보성 전남권 환경성 질한 예방관리센터)를 보유한 곳이다.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를 제외한 전남의 웰니스 관광지를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13일 전남

관광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50명을 선정해 아이폰, 블루투스 이어폰, 전남 청정협상, 고흥 유자차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전남관광재단은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 중 일부를 선별, 향후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추천자료로 활용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전남관광재단은 이벤트 심사위원회 도민 한 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1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802-2150.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 기 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